

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론 비교이해  
(구원단계를 중심으로)

指導 : 최태영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12월 27일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오 홍 은

오홍은의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主審 .....

副審 .....

副審 .....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년 12월

## 謝 辭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신 최태영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2003년 12월 27일

제출자 오 홍 은

# 목 차

<b>I. 서론</b> .....	1
A. 연구동기와 목적 .....	4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b>II.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b> .....	5
A. 신학 형성의 배경.....	5
1. 요한 칼빈의 신학형성 배경 .....	5
2. 요한 웨슬레의 신학형성 배경 .....	10
B. 신학적 특징 .....	15
1. 요한 칼빈의 신학적 특징 .....	15
2.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 .....	18
<b>III.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관 이해</b> .....	22
A. 칼빈의 구원 이해 .....	22
1. 칼빈의 예정론 .....	22
1) 예정론의 위치 .....	22
2) 이중예정 .....	23
3) 예정론과 예지 .....	25
4) 예정론과 자유의지 .....	26
5) 그리스도안에서의 예정 .....	26
2. 구원의 단계 .....	27
1) 소명 .....	28
2) 중생 .....	29
3) 믿음 .....	30
4) 회개 .....	31
5) 칭의 .....	33
6) 성화 .....	35

7)성도의 견인 .....	36
B.웨슬레의 구원이해 .....	37
1 선행의은총 .....	37
2. 확신의은총 .....	40
3. 칭의의은총 .....	42
4 의인이 됨 .....	32
5. 신 생 .....	40
6. 믿는자의 회계 .....	47
7. 성령충만과 성회 .....	49
<b>IV.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단계 비교</b> .....	53
A.구원단계의 관점 비교 .....	53
B.구원단계상의 차이 .....	55
1.선행은총과 소명 .....	43
2.칭의와 중생 .....	56
3.점진적 성화와 성도의 견인 .....	56
4.성결과 성화 .....	57
<b>V.결론</b> .....	58
*참고문헌 .....	62

# I. 서론

무릇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역할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속에 일관되어 있는 구원의 도리를 질서정연하게 체계화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로만이 아닌, 그 믿음에 일치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밑받침이 되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튼 와일리 박사(Orton Wiley)의 말과 같이, 사상(신앙)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영원한 결과를 거두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바이다.

한 사람이 신봉하는 신학이론이 그 사람의 실제 신앙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물론 평신도들이 다 신학을 배워서 얻은 신학지식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평신도 중에도 권위있는 신학자도 있겠으나, 문제는 교역자층에 있는 것이니, 교역자 자신들이 가진 신학적 견해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그대로 평신도들의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신학계통을 로마 카톨릭 신학과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개신교 신학으로 양분하고, 개신교신학은 루터란(Lutheran), 칼빈주의(개혁주의), 웨슬레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개혁주의)와 웨슬레안 신학이 양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 두 신학체계를 바탕으로 교과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가지 패턴 또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신앙의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같은 신앙생활의 두 유형이 어디서부터 연유되느냐 하면, 바로 성경의 어느 특정한 구절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그런 해석 차이는 양 신학체계의 이론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서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게 된다.)

1. 현대교회 신자들의 첫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죄짓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② 따라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죄는 안 지을 수 없다. 죽어서야 죄는 안 짓게 된다.
- ③ 나는 예정(절대 예정론)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책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입혀지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2. 또 하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절대로 범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그렇다고 해서 죄는 안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을 힘입어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참된 그리스천의 지상과제이다.
  - ③ 만일이라도(if) 범죄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시 회개 고백하고,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요일 2:1, 1:7, 9)
- 위 두 입장을 비교하면,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의 절대예정론에서

---

1) Dale M. Yocum. 「웨슬레신학과 칼빈신학의 비교」 손택구역(보이스사. 1998.) p.10.

도출되는 이론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양상으로써,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 조항인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무조건 영원 구원 보장(Perseverance of the Saints or Unconditional Eternal Security)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일관된 뜻에 일치한 성결된 생애를 목표로 한 것으로써 성도의 조건부 구원보장(Conditional Eternal Security)을 말하며, 웨슬레 신학은 이 입장을 취한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영원 구원 보장”(Eternal Security)을 말할 때, 무조건(Unconditional)이라는 말을 보통 안 쓰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야 영원토록 보장된 구원이다. 요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느냐(완성하느냐), 못하느냐의 조건부의 영원구원임을 잊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빌 2:12b)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말은, 구원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는 전체과정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체과정의 네 가지 국면의 각 국면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는 구원의 4중국면(Four-fold Aspects of Salvation)을 볼 수 있으니, 즉 초기구원(Initial Salvation - 사죄, 칭의, 중생, 양자), 전적 또는 충만한 구원(Full Salvation - 온전한 성결), 계속적 구원(Continuous Salvation - 성령충만으로 계속 성장),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궁극적·최종적 구원(Final Salvation)이다.

이신득의(Justification by Faith)는 초기구원을 이루고, 이신성화(Sanctification by Faith)는 전적 충만한 구원과 계속적 구원의 과정에 필요하고, 궁극적·최종적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서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구원의 전과정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만물의 대자연이 한치의 차질이 없이 운행되는 것과 같이, 하늘의 법칙도 인간들이 자기편의 주의로 합리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갈 6:9).

여기에서는 신학의 여러 분야 중 구원론을 취급한다. 그것은 기독교가 도덕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계시종교이기 때문이다. 구원론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단계를 중심으로 칼빈과 웨슬레 신학을 고찰하려고 한다.

## A. 연구동기와 목적

최근의 추세는 칼빈과 웨슬레의 차이점 보다 일치점 확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입장이다. 「요한 웨슬레의 재발견」을 저술한 셀(Cell)은 “우리가 웨슬레의 가르침과 설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웨슬레의 신학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재인식과 재발견이었다”<sup>2)</sup>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아래 칼빈신학의 형식 구성원리 중에 “일치라고는 하나 혼합은 아니다. 구별이기는 하나 분리는 아니다.”<sup>3)</sup>는 표제가 있다. 이 말은 진리 규명에 있어서 혼합보다 일치에, 분리보다는 구별에 그 중요성이 있음을 밝혀 준다. 이 원칙에 따라서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레의 구원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원의 단계의 조화되는 면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면, 이 양면의 창의적 중

---

2) George G.Cell, 「존 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역(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1982),p.157.

3) W.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서울:기독교서회,1980),p.244

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려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B.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칼빈신학과 웨슬레 신학의 구원단계순서를 비교 고찰하되, 연구 방법과 범위는 주로 칼빈과 웨슬레의 저서들을 주 자료로 삼아 기독교강요와 웨슬레 통서를 연구하고 그외 여러 가지 학자의 견해를 보조자료로 삼는다.

먼저 1장에서는 서론과 구원론의 중요성 및 연구목적을 피력하여 논문의 방향을 설정하고 2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을 3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중 구원관을 중심으로 이해하며 제4장에서는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 중 구원단계를 비교하고 끝으로 두 양대신학을 배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논점의 상호공존의 가능성 및 조화의 필요성에 의한 구원단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결론을 맺을 것이다.

## **II.칼빈과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

### **A.신학형성의 배경**

#### **1.요한 칼빈의 신학형성 배경**

##### **a. 성장과 회심**

존 칼빈은 프랑스 피칼디 주 노용시에서 1509에 출생하였는데 그곳은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60마일 되는 곳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하여 사소한 일이라도 예사로 생각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었다.<sup>4)</sup> 칼빈은 이 아버지 (제넬코반)에게서 지식욕과 조직적 두뇌를 물려받았고, 어머니 잔느르 푸랑에게서는 경건을 배웠다. 그의 가정은 사회적 부와 지위를 함께 가졌었고, 칼빈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다.<sup>5)</sup>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처음에는 신부로 만들 생각으로 칼빈이 12세 되었을때 그의 생활비에 넉넉할 만큼의 수입이 있는 교회사 직분에 붙여 주었다. 칼빈은 교직을 목표로 훈련받았고, 학교에서는 조수의 일도 보았다. 1523년 14살때에 칼빈은 멀리 유학을 떠났다. 그는 귀족 몬모르와 쟈리의 자제들과 함께 라 마르슈 (La Marche) 대학에 입학 하였다. 당시 라 마르슈 대학은 프랑스 인문주의 신문화의 본산이며, 국왕 프랑소아 1세의 교육제도의 중앙 집권 정책에 따라서 견실하게 발전하던 곳이었다. 칼빈은 이 대학에서 교수 코디어 (Maturin <sup>6)</sup>Cordier)에게 라틴어를 배웠고 이로써 다른 개혁자들보다 훨씬 나은 라틴어를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그해 몬테그(Montaigne) 대학으로 옮겼다. 이것도 아마 그의 아버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 교회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에서 교직을 목표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함 같다. 칼빈은 이곳에서 우선 철학을 4년간 전공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1527년 그의 아버지의 심경의 변화로 그는 오를레안(Orlean)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좀 더 명예로운 생애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그는 불슈

4) E.S.모이어, 「인물 중심의 교회사」 (서울:기독교서회, 1983), p.297

5) 전경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한신대학 출판부,1984),p.11-13

6) 전경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한신대학 출판부,1984), p. 9

(Bourges) 대학에서 공부한 결과 큰 성공을 거두었다.<sup>7)</sup>

1531년 그의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자 칼빈은 법률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고전을 연구하였다. 그는 법률가 보다는 문필가가 되기 위해서였다. 칼빈은 이곳에서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설을 출판하여 학계에 데뷔하였다.<sup>8)</sup>

1523년 그는 갑작스런 회개를 경험하였다. 칼빈 자신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완고하게 이 로마교의 미신에 몸과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완악하기로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였던 나의 모든 생애를 정복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마음이 불붙게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John Calvin :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1949. P. XL) 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되었고, 이기적 자기 추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칼빈은 1533년 프랑스 곧 제네바 종교개혁 운동의 선도자로서의 길을 닦기 위해 파리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로 구성된 작은 단체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지도자중 하나가 되어 회원들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게 되었다.<sup>9)</sup>

## b. 회심 그 이후

칼빈은 1535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스트라스버그(strassburg)로 가서 다시 스위스의 바젤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경건한 호구라인 부인댁에 투숙하게 되

---

7) 모이어, p. 297

8)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세종문화사,1980), p. 10

9) 모이어, p. 298

었고, 그 집에서 1536년 그의 불후의 걸작인 “기독교 강요” 제 1판을 라틴어로 출판하였다.<sup>10)</sup> 이 책의 출판 동기는 당시 프랑스의 신교도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의 잘못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칼빈의 나이는 26세였고, 이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을 즐거리로 하고 모든 성경에 기초하고 있었다.

1535년 제네바에서는 천주교에 치명적인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한 여자가 신교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을 독살하려다가 발각된 사건과 신교 공개 신학 토론회에서 신교측의 승리였다. 그래서 사실상 제네바는 신교 도시로 바뀌고 있었다. 이때 지도자는 화렐이었다. 화렐은 밤에 칼빈에게 찾아가서 개혁 운동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칼빈은 자신의 성격과 안맛을 뽐내려 경험도 없어 거절하려 했으나 화렐이 “그대가 만약 하나님의 일보다 고요한 생활로 독서나 즐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저주하리라” 는 말을 했고, 칼빈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제네바 개혁 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1536년 10월 1일 로잔에서 열린 성찬 문제로 신교파 사이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칼빈은 교부신학을 자유로이 인용하면서 로마 천주교의 잘못을 밝혔고 결국 토론회는 신교의 승리로 끝났다. 그 후 1538년부터 1542년 3년간 칼빈은 스트라스불그에서 활동하였다. 이곳에서 그의 사상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며,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칼빈은 멜랑톤과 평생동안 깊은 우정을 맺었고 루터를 존경하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불그에서 있는 동안 교훈하며 설교하였고, 또한 목회를 했을 뿐 아니라 저술도 많이 하였다. 칼빈은 이때 그리스도교 강요 제2판

---

10) 정성구, p. 12

11) 모이어, p. 303

을 내고 로마서 주석과 성찬에 관한 통속적인 논문이란 책도 썼다. 1540년 한 과부와 결혼하였는데 9년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많은 내조를 받다가 1549년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 c. 사상적 배경

1559년 칼빈이 기독교강요의 결정판을 출판했을 때, 그의 대작은 아마도 신약성경 이후 교리신학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단행본이었다.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그의 저서 「칼빈과 어거스틴」 (Calvin and Augustine)에서 그의 신학적 위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종교개혁운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서,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신학의 전체 발전의 기초이며, 복음적 사상에 대해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겨주었다. 3세기 반이 지난 후에도, 그것은 모든 교리신학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영향력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sup>12)</sup>”

그런데 워필드는 칼빈 신학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어거스틴을 제시하며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진 빛을 강조하였다. 칼빈이 비록 교회론에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그의 교회론은 하나의 논제를 이루지 않는다. 벤자민 워필드가 지적하여 강조하였듯이 그것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후에 칼빈주의라고 불리울 만큼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은총의 교리인바 그것은 어거스틴에서 온 것이다.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바울에게서 그것들에 대한 영감을 얻어낸 어거

---

12) Benjamin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1.9.8). Arthur C. Custance, 「칼빈의 교리신학」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총서 제3권(서울:기독교 문화협회)1986, p.109에서 재인용.

스틴에 의해 은연중 형성되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칼빈은 그 바탕이 어거스틴 주의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sup>13)</sup>

찰스 핫지(Charles Hodge) 는 개혁신학의 유산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그것들은 역사상 바울, 어거스틴 또는 칼빈주의의 것으로 알려진 위대한 교리의 개요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쳤고, 어거스틴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라틴교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얻었고 중세기의 진리의 증인들에 의해 추종되었으며 ... 14)

이상과 같은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기타 구원사상은 칼빈에게 전승되어져서 칼빈의 구원관의 주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헨리 미러(Henry Meeter)가 “칼빈의 교의들은 ...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sup>15)</sup>이라고 말한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 2.요한웨슬레의 신학 형성 배경

### a. 시대적인 배경

웨슬레가 일생동안 추구한 것은 바로 구원이었다. 그의 모든 사고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웨슬레에게 있어서 구원은 항상 추구였다고 하는 점이다. 그의 생애가 운동과 점철되어 있듯이

---

13) T.F.Torrance, “칼빈에 있어서 신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말의 문제”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연대출판부,1965), p.84

14) Charles A.Hodge, Systematic Theology, Vol.Ⅱ,p.333. Arthur C.Custance,p.110에서 재인용.

15) H.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Baker House,1975),p.24.

그의 사상도 끊임없이 발전되고 진보된 모습을 보여준다.<sup>16)</sup>

웨슬레의 신학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신학이 신앙체험을 통해 얻어진 확신에 기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18세기의 지적인 기풍을 이루고 있는 합리주의와 자연신론을 대항하여 복음적인 그리스도교의 적극적 주장으로서 출현하게 되었다.<sup>17)</sup>

분명히 18세기는 현저한 과학적 발전의 시대였고, 또한 정치적 변동의 급격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17세기 말, 18세기 초 영국에는 계몽주의 정신이 편만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결과는 종교에 있어서 합리주의 발전(development of rationalism in religion)이었다. 종교적 합리주의의 강력한 자극은 종교전쟁 시대의 걱정과 잔혹성에 대한 도덕적 반동이었다. 영국 종교사상에 나타난 합리주의는 3가지 개별적 성향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는데, 온전한 형태는 합리적 초자연주의(Retional Supernaturalism)로, 대부분의 주류는 기독교 자연신론(Christian Deism)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급진적인 형태는 반기독교 자연신론 (Anti-Christian Deism)으로 전향되었다.<sup>18)</sup>

그러나 웨슬레는 이러한 자연신론과 이성주의에 대항하여 지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진리가 성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으로써 만족하였다. 왜냐하면 웨슬레는 자연신론자들을 끌어오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논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생활의 산모범과 성경의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19)</sup>

---

16) William Cannon,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육국,1986) p. 34.

17) Ibid., p.24.

18) Williston Warker, p.437.



요한 웨슬레의 신학 형성의 시대적 배경을 특징짓는 두 번째 요소는 그의 신앙부흥운동이 18세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부도덕과 부패의 경향에 맞서는 도덕갱신 운동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sup>20)</sup> 당시 하층 계급의 영적 상태는 거의 파멸의 지경이었다. 대중들의 오락은 야비하고, 문맹은 만연되고 법률집행은 야만적이요, 감옥은 질병과 죄악의 소굴이요, 음주는 영국 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다.<sup>21)</sup> 새로운 정치 경제적 동향은 정치가와 학자들로 하여금 서슴치 않고 추태와 외설을 감행하도록 만들었다. 결혼서약은 벌써 신성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sup>22)</sup> 상류사회는 회의주의에 빠져 종교를 조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에 있어서 웨슬레의 과업은 영국의 도덕과 종교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변적 신학을 피하고, 다만 깨끗하고 관대하며, 건전한 생활을 하며 실제로 “인간 가운데서 모범되신 그리스도의 산 모습”이 되려 하였다.<sup>23)</sup> 그래서 웨슬레는 그의 설교와 그의 복음적 운동의 타당성을 변호하면서 도덕적 성취, 인간생활의 변화, 신앙의 열매 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sup>24)</sup>

#### b. 영국 국교회의 신학적 영향

특히 영국의 고교회(High Church)의 영향을 받아서 의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체득했다. 그 후에 규칙쟁이(Methodist) 라는 조롱을 받기까지 규칙적인 생활에 힘쓰며 수도원적인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도 내면세계의 불안

19) John Wesley, Works X(Grand Rapids:Jondervan Publishing House,1982),p.77.

20) W. Cannon, p.24.

21) Williston Walker, p.454.

22) W.Cannon, p.23.

23) Sermon IV, Part IV, Sec, 5.

24) Work VII, pp.475-477.

과 번민 때문에 몸부림 쳤다.

1789년이 저물어 가는 무렵에 웨슬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 “나는 어린시절부터 성서를 사랑하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을 존경하며,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인 영국 국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성서적인 국가 교회로서 존경하라는 교훈을 받았다.”<sup>25)</sup>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웨슬레의 구원관에 미치게 된 영향을 그의 교회와 가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영국 교회의 신학의 대변자라 할 리처드 후크(Richard Hooker) 는 ①성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책이며, 이것은 순결무구하고 다함이 없는 생명수라 하였다. ②그러나 그는 교회의 권위를 역시 인정하여 교회는 우리로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는 성경 다음 가는 지도자라 하였다.<sup>26)</sup>

후크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영국교회 소장과 지도자요 칼빈주의 반대자였던 윌리엄 로우(William Laud) 인데, 그는 자신의 책 「제수이트파 피셔와 그 자신과의 회합의 관계」 (Relation of a Conference Between Jesuit Fisher and Himself)에서 “인간은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서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길도, 하늘에 이르는 길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여 믿음을 강조하였으며, 그 믿음 자체는 사람의 동의 즉 “사람의 의지와 이해가 혼합된 행위”라고 보았다.<sup>27)</sup>

영국 국교회는 “신앙에 의한 의인”이라는 바울의 개념을 해석할 때에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웨슬레 시대에 있어서 영국 국교회의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무를 하나님의 체계로 묶어 보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

25) Works VII, p.272.

26) 송홍국, 「웨슬레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88), p.12.

27) W.Cannon. p.42.

### c. 가정적 배경

웨슬레의 모친 수산나 웨슬레(Suzanna Wesley)는 그 자녀교육의 모토로서 “이지와 경건”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에 힘썼다. 즉 종교의 모든 원리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교육했다.<sup>28)</sup>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비 영국국교도 가정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나 수산나는 만 13세에 이르기 전에 벌써 “기성 교회와 비 영국 국교회 사이의 논쟁”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차츰 영국 국교회의 교리편으로 사고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sup>29)</sup>

사무엘 웨슬레와 수산나 웨슬레는 둘 다 “영국 알미니우스주의”로 분류한 학파에 속한다.<sup>30)</sup> 그들은 다같이 만인 구원설을 믿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속박하시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나 멸망을 강요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sup>31)</sup> 즉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예정을 말하는 이중예정론을 반대하였다.<sup>32)</sup>

웨슬레의 부모가 영국 국교회로 전향하여 그 신앙을 고수하였지만, 그들이 청교도의 전통속에서 자라왔으며 또한 어렸을 적부터 모두 청교도적 신학과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기에 그들의 자녀교육에는 청교도적 양육의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웨슬레는 “성공회의 제도 및 권위와 청교도의 두려움 없는 창의성과 금욕주의의 영향”을 부모를 통해 받게 되었다.<sup>33)</sup>

---

28) 송홍국, p.29.

29) J.Kirk, The Mother of the Wesley, (London:Henry James Tresidder,1864),p.32.

30) William Cannon, p.56.

31) 송홍국, p.30.

32) 조종남, p.23.

33) 총서Ⅲ. p.34.(Skevington Woodd, John Wesley the Burning Heart. Tr 김선도)

이러한 모든 점에서 웨슬레는 그의 부모를 통하여 영국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이어 받았으며, 영국 교회의 고교회주의<sup>34)</sup>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 d. Aldersgate Street에서의 회심의 영향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홀연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체험을 했다. 여기서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개신교의 핵심되는 진리가 확연해졌다. 과거에는 믿음을 선행 또는 의식에 예속시켰으나 회심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접붙힘 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게 되었다.<sup>35)</sup> 웨슬레는 여기서 과거에 믿음을 “지적 동의”로 보았던 견해를 바꾸어 “신뢰(trust)”로 수정했다. 이런 신앙관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으며 종합적으로 그의 구원론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 B.신학적 특징

### 1.칼빈의 신학적 특징

#### a. 칼빈신학은 창조적 이기보다 공식적이다.<sup>1)</sup>

칼빈은 종교개혁에서부터 루터, 쾰링거를 잇는 제세대에 속하는 개혁자

---

34) 고교회주의(High Church)란 저교회 주의(Low Church)의 상대적인 용어인바, 영국 교회 내에서 교회의 의식과 권위와 제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주의이다.

35) 나균용, “웨슬레 구원론의 특징”, 「신학과 선교, 제7집」 (서울신학대학, 1983), p.45.

1) W.Walker, p.297.

이다.<sup>2)</sup> 그는 루터와 쾰링글리가 닦아 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유리한 위치에서<sup>3)</sup> 쾰링글리의 스위스 종교개혁운동으로부터 연유하는 개혁과 교회의 초기유산을 이어받아 개혁운동을 계속하고 개량하여 완성시켜 더 중대한 사업으로 진전시켰다. 그는 두 선배에 비해 사업가로는 부족했으나 재능, 사상가, 조직가로서는 우월하였다. 즉 두선배는 새로운 개혁의 기초를 이룬 사상을 창출하였고 칼빈은 그것을 체계있게 조직한 것이다.<sup>4)</sup> 칼빈은 새로운 종교사상의 체계를 개혁하는 면에서는 독창적인 인물은 아니다. 그는 대체로 어거스틴, 루터, 기타 여러 사람들의 관념을 이어받았다.<sup>5)</sup>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개혁에서 자기의 임무가 선구자들의 교리적 근거를 다시 닦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조직, 확립하여 새로운 세계에 확장시키는 일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신학과 칼빈의 사상구조는 창조적이기 보다 오히려 공식적(formulative)이며 조직적이다.

#### b. 칼빈신학은 성서주의이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주의”라는 말이 칼빈에게서 비롯되었으나 칼빈의 이름에 집착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며<sup>6)</sup> 칼빈에 의해 전해진, 신학사상이거나 창작물로 여겨서도 안 된다고 한다.<sup>7)</sup> 칼빈주의는 성경전체의 사상이며 바울, 어거스틴이나 동시대의 개혁자들과 일치하는 사상으로 성경교훈을 조직적으로 해설한 것으로 인간의 사색된 철학, 종교가 아닌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법을 성서 그대로

2) J.L.Neve,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서울:대한 기독교서회,1983). p.440.

3) E.S.Moyer, 「인물중심교회사」 광안전,심재원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1986),p.297.

4) Moyer, p.297.

5) Neve, p.420.

6) R.C.Reed,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홍명창역(교회교육연구원,1985), p.15.

7)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84), p.13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칼빈주의에 대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었고,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이며 칼빈주의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의 신학체계 수립의 근거는 성서였다.<sup>8)</sup> 성서는 그에게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며 규범이었다.<sup>9)</sup> 칼빈신학의 특징은 “전체로서의 성서”의 이해와 실제적 동기에서 촉진된 것이다. 그는 성서에서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 은총, 거룩을 보고 계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으려 했다.<sup>10)</sup> 기독교 강요를 쓴 의도를 칼빈은 제 3판 서문에서, 성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읽는 자에게 성서의 안내서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sup>11)</sup> 그러므로 칼빈신학은 그 권위의 기초를 성서에 두는 성서주의이다.

### c. 칼빈신학은 경험적이다.

칼빈신학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그가 기독교 강요를 쓴 내적 필연성과 그 목적인 바를 알아야 한다.<sup>12)</sup> 칼빈이 강요 초판에서 전하고자한 회적 동기는 당시 개신교를 박해하는 프랑스 왕 프란시스(Pransis)에게 개신교 신앙을 변호하기<sup>13)</sup> 위함이었으나 실제 의도는 어떤 사상이나 주의가 아니고 자기의 변화된 생명이 출

---

8) 홍순우, “구원론에 나타난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비교연구”,(서울:아세아연합신학대학,1980),p.28.

9)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London:James Clarke and Co.1962),VI. 21,3. (이후 Inst. 표기함)

10) 박봉량,“칼빈의 예정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국신학대학 출판부,1978),p.129.

11)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한국신학대학출판부,1984), pp.70-71.

12) 홍순우, op.cit., p.29.

13) B.K.Kuiper, 「세계기독교회사」 김해연 역(서울:성광문화사,1983),pp. 231-232.

말한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시하려는 것이었다.<sup>14)</sup>

칼빈은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통해 은총을 체험한 것이 성서의 주제와 일치하였다.<sup>15)</sup> 이것이 칼빈신학이 지닌 논리를 초월한 비의(秘義)이다. 칼빈신학의 출발점은 회심이 가져온 하나님 체험이었다.

## 2.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 특징

웨슬레 신학은 구원론이 중심이며 자신과 신자들의 신앙경험을 바탕으로<sup>16)</sup> 모든 성도의 신앙목표가 되는 성결, 완전에 강조점을 둔다.<sup>17)</sup>

전술한 바와 같이 웨슬레 신학의 특징이 구원론 중심이라면 웨슬레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였는가? 웨슬레는 구원이란 첫째로 법적인 차원(legal dimension)으로서 형벌에서 사면을 받는 일이라고 했다. 그 둘째로는 의학적 차원(medical dimension)으로서 질병 즉 죄성에서의 치유함을 받는 일<sup>18)</sup>이라고 보았다.

이제 이러한 구원론적 신학을 형성한 웨슬레 신학의 제반 특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a. 웨슬레 신학은 복음적이다.

---

14) 진경연, p.69.

15) 홍순우, op.cit., p.30.

16) 송홍국, p.244.

17) 조종남, P.123.

18) 송홍국, 「웨슬레 신학과 구원론」 (서울:기독교서회), 1975, p.84.

웨슬레 신학은 개혁자들의 신학이 그랬듯이 복음적이다. 그것은 웨슬레가 당시 영국교회의 인본주의적 신학사상에 대해 루터, 칼빈의 복음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부흥운동의 추진력으로 삼은 사실에서 나타난다.<sup>19)</sup> 웨슬레의 복음주의 원리 세가지는 첫째, 모든 선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며,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모든 능력을 전적 부인하며, 셋째, 인간의 모든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거나 행한 것 까지도 공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체험을 통해 확신한 것이다.<sup>20)</sup> 이 면에서 웨슬레는 루터, 칼빈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복음주의를 확고히 한다.

#### b. 웨슬레 신학은 경험적이다.

일반적으로 웨슬레의 기독교관은 경험의 신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색은 신자의 경험을 긍정한 데 있다.<sup>21)</sup> 웨슬레는 경험에 호소하는 그의 신학 작성에 있어 모든 사람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그 직능과 권리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계몽주의 사상의 경험적 제 1원리를 적용시켰다.<sup>22)</sup> 그의 완전 교리 역시 경험의 한 호소이다. 하피는 웨슬레 신학이 체험을 근거로 하므로 상아탑 신학에 결여되기 쉬운 신빙성이 있는 즉 시험을 거치고 그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신학이라 하였다.<sup>23)</sup>

---

19) G.Cell, p.9.

20) 조종남, p.27.

21) H.Lindstrom, 「웨슬레와 성화」 전종욱 역(서울:기독교대한 감리회 교육국,1984),p.14.

22) G.Cell. op.cit., p.23.

23) Steve Harper, 「웨슬레의 멧세지」 신광준역(서울:도서출판웨슬레,1986),p.12.



웨슬레가 말하는 경험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하는 것으로 이성적 지각과 같으며, 잡다한 현상계의 낮은 차원의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 속에 직접 증거하시는 초월적 경험이다.<sup>24)</sup>

웨슬레는 이런 주관적 경험으로 종교적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sup>25)</sup> 셀은 웨슬레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경험주의 신학자로 보며<sup>26)</sup> 그가 당시 과학정신을 신학연구에 도입하여 신학제반문제를 경험주의와 응용적 기독교의 실험관에 통과시킴으로써 진리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즉 그의 신학연구 방법은 경험주의이며, 그것은 그의 신학이 경험주의 신학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c. 웨슬레 신학은 창의적 종합이다.

웨슬레는 성서와 함께 기독교전승을 중요시하였는데, 특히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연대적으로 가깝고 동서 교회 양분 전인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을 좀 더 기독교진리로 인도해주는 신빙성과 권위를 지녔다고 인정했다.<sup>27)</sup> 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신약성서의 중요요소들도 강조하고<sup>28)</sup> 각 학파의 장점들을 창의적으로 종합했다.

그 종합은 기독교의 완전 교리에 잘 나타났는데, 이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충분히 취급, 강조하지 못한 채 간과한 것을 웨슬레가 재발견하여 체계화한 가장 성서적인 것이다. 이 교리를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메도디스트들에게 위탁한

---

24) 송홍국, 「웨슬레 신학」 p.24.

25) A.Outer, p.29.

26) G.Cell, p.19.

27) 송홍국, 「웨슬레 신학」, op.cit., pp.21-22.

28) 조종남, op.cit., p.29.

위대한 유산이라 믿었으며, 이를 전파하도록 감리교도를 일키셨다고 확신했다.<sup>29)</sup>

완전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 웨슬레 신학은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전통에 뿌리를 박았고 자기부정과 훈련을 통한 완전에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로마 카톨릭의 강조와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강조를 보강하고 동시에 알미니안주의와 실제적인 신비주의적 요소를 지닌 영국고교회적인 것과 칼빈적이며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주의의 형식으로 나타난 루터적 특색을 창의적으로 종합한 것이다.<sup>30)</sup>

#### d. 웨슬레 신학은 실제적이다.

웨슬레 신학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인간 구원과 신자의 신앙향상을 목표로 한 실제적 신학이다.<sup>31)</sup> 웨슬레는 생의 목표가 자기 영혼 구원과 목회 범위 내의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이었다.<sup>32)</sup>

웨슬레는 구원을 현재의 구원과 궁극적 구원을 포함한 본연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분한다. 구원은 실제 시작이 있고 계속되며, 끝이 있다. 이에 근거한 구원의 단계가 웨슬레의 구원론 체계이다. 따라서 그는 구원의 본질적 시작인 칭의와 현재적 완전인 성화를 강조한다. 또 죄의 성격에서 구원론을 설명하여 죄책에서 용서는 의인, 부패성에서 씻음 받는 면은 성화라 하여 의인과 성화를 현재적 구원이라 한다. 웨슬레는 죄의 성질 중 주관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성화를 더 강조한다<sup>33)</sup>

---

29) 홍순우, op.cit., p.24.

30) H.Lindstrom,op.cit., p.17.

31) 송홍국, 「웨슬레 신학」,op.cit.,p.26.

32) 홍순우, op.cit., p.25.

33) 조종남,op.cit., p.125.

웨슬레는 이 구원의 도리를 난해한 신학용어나 사상이 아니라 평범한 언어로 모두가 듣도록 증거하였다. 그의 신학은 실제적으로 평민을 위한 신학이다.

### Ⅲ.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관 이해

#### A. 칼빈의 구원이해

앞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칼빈의 여러 신학적 특징을 살폈으나 사실상 특징은 칼빈의 예정론 사상에 있다. 칼빈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이라 할 수 있는데 칼빈의 은총의 표현은 예정론이라 하겠기 때문이다.<sup>1)</sup> 그는 은총을 회심사건에서 체험하였다. 칼빈신학에서 일관하여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항하는 자까지도 복종시키는 힘으로 나타난 은총의 사실이다. 칼빈은 바울처럼 회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였고 그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답한 것이다.<sup>2)</sup>

#### 1. 칼빈의 예정론

##### a. 예정론의 위치

칼빈이 예정론을 취급한 형식과 기독교강요의 구조에서 보면 예정론이 그의 신학적 중심적 가르침이라 볼 수 없다. 강요 초판에서는 예정론의 항목이 없고

---

1) 박봉량, op.cit., p.133.

2) 전경연, op.cit., p.72.

단지 은총으로 선택받은 무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론 안에서 취급되었다.<sup>3)</sup> 예정론은 1537년“신앙의훈련”(Instruction in Faith)의 제 13장 “선택과 예정”에서 처음 별도의 취급을 받았고 “제네바 신앙문답”에서도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졌다. 1539년에 강요2판에서는 전 17장 중 제 8장에서 예정을 논술하였고, 1559년 라틴어 기독교강요 결정판에서는 예정론을 제 3권의 성령론 속에 마지막 부분인 종말론과 소명론 사이에서 다뤘다.<sup>4)</sup> 구조와 형식으로 보면 예정론은 칼빈신학에서 기독교강요의 일부분으로 다루며 전체를 결정하는 예정론신학으로 취급된 것이 아니다.<sup>5)</sup>

연구자들은 칼빈신학의 체계가 예정사상에 기초를 두었는가 하였으나 예정사상은 칼빈사상의 출발점이 아니고 그가 은총을 말할 때에 논리적으로 도달한 귀결점이다.<sup>6)</sup> 구조와 형식상 예정론은 일부분이지만 칼빈신학 전체에서 예정론의 정신과 성서의 근본적으로 이해된 주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의 자유를 표현하였으므로 칼빈신학에서의 예정론 위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이라 하겠다.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예정론 신학이다.

## b. 이중 예정

이중예정론은 칼빈 만이 했던 얘기는 아니다. 칼빈보다 1,000년이나 앞선 어거스틴(Augustinus)에 의해서 확립된 것인데 칼빈이 이를 더 체계화 시킨 것이다. 이중예정이란 유기(reprobation)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중예정이란 한다.<sup>7)</sup> 즉

3)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Westminster Press, 1956),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대한기독교서회, 1973), p.165.

4) Inst. III, 21, 22, 23, 24,

5) 박봉량, op.cit., p.133.

6) 전경연, op.cit., p.158.

7) 안수도, “칼빈의 예정론”,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78.) p.87.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복음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경험적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정론을 언급한다.<sup>8)</sup> 예정론은 반대가 거세었기에 칼빈은 그의 주장을 방어하려고 오랜 연구, 발전시켜 그의 특유의 교리형태로까지 형성하여 결국 이중예정 이론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선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성 가운데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sup>9)</sup>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예정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참된 겸손을 무시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완전 무시하고 자기 안에서 작정하신 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sup>10)</sup>(롬11:5,6)

칼빈은 이중예정에 대한 많은 반대에 대해서 “선택이란 것 자체가 유기와 대치되지 않으면 존립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sup>11)</sup> 또한 예정 교리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하며 말씀이 허용하는 외에 예정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한다.<sup>12)</sup>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선택이며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주심에 있어서 자유하시다는 것이다.<sup>13)</sup>

이중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뜻의 절대성을 적극 긍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하나님의 은총의 철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sup>14)</sup>

---

8) Inst.Ⅲ,21,1.

9) Inst.Ⅲ, 21,1.

10) Ibid.

11) 안수도, op.cit. p.88.

12) Inst.Ⅲ. 21,2.

13) Inst.Ⅲ, 22,1.

14) 전경연, op.cit.,p.162.

### c. 예정론과 예지

칼빈은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적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하찮은 이론도전을 비방한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감히 부정하지 못한다고 일축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명히 예지와 예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다른 편에 종속시킴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과거, 미래 없이 모두 현재로서 그의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실제 바라보고 식별하는 것과 같은 현재이다.<sup>15)</sup>

선택은 공로의 예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서 오는 것이다. 예지의 근거로 칼빈은 엡1:4을 제시한다. 아담의 자손 전체를 통해서도 선택할 만한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생명에 참여토록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인간구원을 자신 안에서만 세우시며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한 사랑의 샘에서 나온 것이다.<sup>16)</sup>

예정론은 선택과 함께 거부를 포함하며 거부, 영원한 포기도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sup>17)</sup> 아담의 타락 역시 예정에 포함되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의한 것이다.<sup>18)</sup> 하나님은 인간창조 이전에 첫 사람의 타락을 예지하시고 아담 안에서 그 자손들의 파멸을 예지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영원한 결단에 의한 규정이다. 이것은 무서운 예정이다.<sup>19)</sup>

---

15) Inst. III, 21,5.

16) Inst. III, 21,1.

17) Inst. III, 23,11.

18) Inst. III, 23,8.

19) Inst. III, 23,7.

#### d. 예정론과 자유의지

칼빈은 어거스틴의 견해를 인용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나 자유하지 못하며 의에 대해 자유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라 한다.<sup>20)</sup>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이성과 의지의 기능으로 보며 은혜의 도움을 받아 선을 택하고 은혜가 없으면 악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sup>21)</sup> 인간 의지는 성령이 없으면 속박된 것이고 속박자인 정욕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자유하지 못하다.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자신과 의지도 잃었고, 자유의지는 노예로 속박되어 의를 위해 무엇을 할 힘도 없다.<sup>22)</sup> 이제 자유의지는 옹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짓밟는 것이며<sup>23)</sup> 타락한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온전할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자유의지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주장하며 이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힘이나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24)</sup> 자유의지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를 받는다.<sup>25)</sup> 인간의 의지는 은혜로 자유를 얻어 선으로 전향되며 계속 선하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의존하는 것이다.<sup>26)</sup>

이상에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은

---

20) Inst. II, 2, 8.

21) Inst. II, 2, 4.

22) Inst. II, 2, 8.

23) Inst. II, 2, 1.

24) Inst. II, 2, 10.

25) Inst. II, 3, 7.

26) Inst. II, 3, 14.

총의 표현인 예정에 의해 선택받은 자의 자유의지가 회복되며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e. 그리스도안에서의 예정

칼빈은 선택이 그리스도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만 함을 주장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결단에 따르는 절대이중예정의 무서운 교리에 비해 그리스도안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적게 취급한다. 칼빈은 가장 명확한 예정과 은총의 예증이 그리스도이며 그는 미연의 행위나 신앙의 공로없이 그 인간성 안에 이 자격을 얻은 것이라<sup>27)</sup>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저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며, 저희를 사랑함도 그리스도께 의거해야만 한다. 따라서 선택을 생각할 때 반드시 비취볼 거울은 그리스도이다.<sup>28)</sup>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택한 자들을 그의 몸에 결합하는 인격이므로, 또 아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아들들로 인정되므로 그리스도와 교제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증을 갖는 것을<sup>29)</sup>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은총으로 결단된 우리의 구원과 선택의 근거인 것이다.<sup>30)</sup>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 2. 구원의 단계

칼빈의 구원론은 예정론의 맥락에 놓여 있으므로 구원단계가 애매하다. 그

---

27) Inst. II, 17,1.

28) Inst. II, 17,1.

29) Inst. III, 24,5.

30) Wilhelm Niessel, op.cit.,p.163.



러나 구원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역사를 인간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순서로써<sup>31)</sup>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므로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칼빈신학의 구원단계 근거는 롬 9:29-30으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사상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칼빈신학에서 세부적으로 단계 순서를 규정하는데 ① 예정, ② 소명, ③ 중생, ④ 믿음, ⑤ 회개, ⑥ 칭의, ⑦ 성화, ⑧ 견인, (⑨ 영화)이다.<sup>32)</sup>

#### a. 유효한 부름 (소명)

칼빈의 구원단계가 예정론을 기초로 함으로 예정 다음에는 자연히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온다. 이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이다.<sup>33)</sup> 하나님이 자신 안에 숨겨두었던 선택을 부르심으로 표명함은 하나님이 이 순서를 택하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미 아들의 위치에 택하셨으나 칼빈은 부르심 받은 자만이 이 위대한 공훈을 소유하게 된다고 본다.<sup>34)</sup> 부르심의 방법은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부르심은 말씀의 들음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립된다.<sup>35)</sup> 말씀의 빛은 값없이 비추이나 하나님의 공훈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 있

---

31)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엠마오,1984), p.201

32) 이 순서는 칼빈신학자들, John Murray, Louis Berkhof 등의 순서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는 ④ 믿음과 ⑤ 회개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강요를 중심으로 단계순서를 정했기 때문이다.

33) Inst. III,24,1.

34) Inst. III,24,1.

35) Inst. III,24,2.

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빛나게 하시려고 성령의 효과를 그들에게서 취해 가시기 때문이다.<sup>36)</sup>

부르심은 보편적 소명과 특별소명이 있는데 보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외적 말씀전파를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와 무거운 단죄의 기연이 되는 부르심이다. 특별소명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전파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도록 성령의 조명을 실현하시는 경우이다. 때로는 일시적 조명을 받은 자도 이에 참여하게 되나 후에 그들은 배신의 연고로 버려지게 된다.<sup>37)</sup>

#### b. 중 생

소명과 중생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sup>38)</sup> 중생 없이는 전체 구원론은 언급 할 수 없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식하는 것과 무관하게 성령으로 직접 나게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지므로 중생은 인간이 거절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절대은총에 의한 예정,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의 하나인 불가항력적 은혜를<sup>39)</sup>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질상 죽은 자연인이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비취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그때 인간은 죽음에서 살아나 새로

---

36) Inst. III,24,2.

37) Inst. III,24,8.

38) Louis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박수준역 (서울:소망사, 1980),p.137.

39) L.B.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홍의표역 (서울:보문출판사,1975),p.192.

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sup>40)</sup> 중생전의 모든 사람은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중생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뤄지며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으로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sup>41)</sup>

엄밀한 의미로 중생은 새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주시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중생은 인간의 근본적 변화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성화와 같이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sup>42)</sup> 중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것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힘 받아 그의 영을 통해서 살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 또 중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므로 옛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박혀 죄의 몸이 죽어 타락한 성품이 힘을 못쓰게 된 사건이다. 이후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와 교제를 추구하는데, 죄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sup>43)</sup> 이런 중생의 목표는 신자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과의 조화 및 일치로 나타내는데 있고, 그들이 자녀로 영접되었음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sup>44)</sup>

### c. 믿음(신앙)

---

40) Inst. III,14,5.

41) Inst. III,3,9.

42) Louis Berkhof. op.cit., p.137.

43) W.Niesel, op.cit.,p.125.

44) Inst. III,6,1.

칼빈은 신앙을 정의하여,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진리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우리 심정 위에 인치시는 것이다.”<sup>45)</sup> 라고 한다.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앙의 목적지이며 그리스도는 그 나아갈 길이다.<sup>46)</sup>

또 신앙은 근거가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진술함에 있지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sup>47)</sup> 신앙의 인식은 논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어느 정도 파악되고 어느 한도를 넘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납득하는 것이다.<sup>48)</sup>

칼빈은 신앙의 열매를 화평으로 보며 신앙의 처음, 아주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 떨어지면 벌써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약한 신앙도 신앙으로서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 신앙으로 승리의 확실성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한몸되는데 있다.<sup>49)</sup>

#### d. 회개

회개는 언제나 신앙에 따라서 올뿐만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죄인이 사탄의 전제와 죄의 멍에와 죄악의 비참한 연속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하여 죄사함과 번제가 복음의 선교를 통해 제물되었기 때문에 누구

---

45) Inst. III, 2, 7.

46) Inst. III, 2, 1.

47) Inst. III, 2, 2.

48) Inst. III, 2, 14.

49) Inst. III, 2, 24.

도 과거 잘못에서부터 정로로 돌아서지 않으면 복음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50)</sup>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따르려고 생을 돌이키는 것이며, 그것은 바르고 거짓없는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고 육과 낡은 자아를 죽이며 영이 소생하는 데서 나타난다. 회개는 양면성이 있다.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 받을 심판을 의식하고 영혼의 슬픔과 고통으로 낙담하는 것이 회개의 첫째 부분으로 통회라 부르는 것이며, 새로 사는 것은 신앙에서 일어나는 위로를 말하는데 이는 사람이 죄를 인식하므로 좌절되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긍휼과 구원을 보게 되어 자신을 분기시켜 용기를 되찾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sup>51)</sup> 즉 회개는 죽이는 것과 새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다.

칼빈은 회개를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두형태로 본다. 율법적 회개는 그것으로 죄인은 뼈아프게 생각하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상처를 위한 약으로, 공포에 대한 위로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sup>52)</sup>

회개와 신앙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으나 칼빈은 구분시킨다. 회개의 뜻은 신자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이며, 그 전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옛사람과 육신이 죽는 것과 성령에 의해 새로 사는 것이다.<sup>53)</sup> 이 갱생은 순간의 사업이 아니라 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신자의 지상생활 중 계속하는 것이다. 비록 허물은 씻겼으나 죄의 사실이 정육 가운데 남아 있

---

50) Inst. III,3,1.

51) Inst. III,3,3.

52) Inst. III,3,4.

53) Inst. III,3,5.

기 때문이다.<sup>54)</sup>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가능하므로 회개 역시 하나님의 독자적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회개는 지정의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회개의 지(知)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회개는 지적수준에서 정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완숙한 회개는 의지적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과거지향적이지 아니라 앞으로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sup>55)</sup>

#### e. 칭 의

예정하사 택하고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은 칭의에서도 유효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을 심판주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 모시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화되어 삶의 결백과 순결을 향해 전심하게 하심인 것을 중생에서 언급하였는데, 칭의를 언급함은 하나님의 공화로 값없이 의를 얻는 신앙이 선행을 결여하지 않으며 성도에게 선행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악하고 구원을 확립해주는 기초가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sup>56)</sup>

칭의의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 간주되고 용납되는 것이다.<sup>57)</sup> 이 칭의 교리는 개신교 신학의 출발점이며, 교리이기 이전에 체험이다. 칼빈은 이것을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한 다음 기독교의 제일되는 요지로

---

54) 전경연, op.cit., p.146.

55)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79), p.482.

56) Inst. III, 11, 1.

57) Inst. III, 11, 2.

의인을 설명한다.<sup>58)</sup> 칼빈은 스콜라주의의 선행 즉 행함으로 얻는 의를 반박하며, 거듭난 자의 선행도 의를 가져올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됨을 주장한다.<sup>59)</sup> 칭의는 선행에 대한 값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인 것이다.<sup>60)</sup> 칭의는 근거가 우리 밖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안에서만 의롭기 때문이다.<sup>61)</sup> 이 칭의의 방법은 놀라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심판대에서 두렵지 않으며, 인간 스스로는 정죄 하지만 외부에서 의롭다함을 선고받는 것이다.<sup>62)</sup> 칼빈의 칭의는 “오직 우리 밖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지적하므로 중생교리만 아니라 칭의 교리에서도 계시신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63)</sup>

칼빈은 유죄한 인간을 무죄하다고 하는 칭의가 법적관계로 전환이 이뤄짐을 강조한다.<sup>64)</sup> 곧 심판자 하나님은 유죄 고소받은 자를 용서하는 사법행위이다. 의인과정은 최고 재판자로 말미암은 은혜의 용서에서 이뤄지는 것이다.<sup>65)</sup>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sup>66)</sup> 칭의에서 신앙은 전혀 수동적이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없는 의를 받는 것이다.<sup>67)</sup>

---

58) 전경연, *op.cit.*, p.147.

59) Inst. III, 11, 15.

60) Inst. III, 11, 18.

61) Inst. III, 11, 4; 14, 17.

62) Inst. III, 11, 11.

63) Ibid.

64) Inst. III, 12, 1.

65) 전경연, *op.cit.*, p.148.

66) Inst. III, 13, 1.

67) L.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op.cit.*, p.156.

이상에서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성부께 복종하신 그 순종을 믿음으로 그 의를 옷 입는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닌 은혜스러운 전가로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f. 성 화

칭의의 상태는 하나님께 헌신된 성화의 생활을 요청한다. 성화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며 죄인의 이전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하여 선행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작용이다.<sup>68)</sup>

칼빈에 의하면, 죄용서와 성화 또는 의인과 중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합일로 얻게 되는 최상의 두선물이다. 칼빈은 강요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은총과 그리스도가 가지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합일<sup>69)</sup>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는 신앙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심인 것을 말한 뒤에 먼저 성화를 말하고 의인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칼빈의 특수한 면으로 성화가 바로 이해될 때 의인론이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sup>70)</sup>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접붙임을 받는 것은 그의 영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할 뿐 아니라 우리 전존재를 소유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그의 영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sup>71)</sup> 칼빈은 단순히 회개를 성화로 설명하여 성화의

---

68) L.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op.cit., p.156.

69)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한신대 출판부,1978),pp.93-94 :Inst. III, 1,1.

70) Inst. III, 3,1.

71) 황성규, op.cit., pp.97-98.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더러워지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한다.<sup>72)</sup>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자들의 죄악성에 대한 견해를 따르되,<sup>73)</sup> 어거스틴은 죄악성을 연약 이라하는 대신에 그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한다.<sup>74)</sup> 그는 신자들에게 죄는 지배력을 상실하였어도 내주한다고<sup>75)</sup> 보며, 우리는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정화되나 죽을 육체에 거하는 한 많은 죄와 연약으로 쌓여 있으므로 완전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엷매이기 쉬운 죄를 날마다 대적해야 한다고<sup>76)</sup> 주장한다. 이처럼 칼빈은 순식간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성화과정을 말하며 그동안에도 여전히 죄인이므로 평생 회개해야 함을 말한다.<sup>77)</sup>

칼빈에 있어서 성화가 일어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에 의존하며 그의 은총에 근거할 뿐 우리 자신의 노력, 선행, 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 g.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선택된 자의 인내가 보증된 것이다.<sup>78)</sup> 성도의 견인은 신자가 구원의 길에서 인내하는 계속적 활동을 암시해 주지만 실제 견인은 신자의 활동이기 보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신자가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성령이 신자 내부에서

---

72) Inst. III, 3,9.

73) Inst. III, 3,13.

74) Inst. III, 3,10;13.

75) Inst. III, 3,11;14.

76) Inst. III, 3,14.

77) Inst. III, 3,8.

78) Inst. III, 24,6-11.

이루시는 지속적인 구원완성을 위한 작용이다. 성도가 현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은 이런 하나님의 견인 은혜를 믿을 때이다.<sup>79)</sup>

참 신자는 신앙과 복음의 말씀에서 이미 명하신 선택의 확실한 기초가 있으므로 결코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의 구원은 세계의 전 구조가 흔들린다 해도 확실성 자체는 변함없이 확고한 기초위에 있으므로 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것이 된 이상 우리가 영원히 안전함을 확신하게 하신다.<sup>80)</sup>

## B. 웨슬레의 구원이해

### 1. 선행의 은총

웨슬레의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sup>81)</sup> 그런데 그 칭의 받는 믿음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거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이다.<sup>82)</sup>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그럼 인간은 칭의 받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믿음이 칭의의 은혜를 주게 한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칼빈의 예정론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위의 질문에 대해 다른 대답을 내린다. 즉 믿음

---

79) L.Berkhof, op.cit.,p.159.

80) Inst. III, 24,6.

81) William R. Cannon, **요한웨슬리 신학**, 조종남번역(서울:감리교교육국), p.132.

82) Ibid, p.132.

을 받기 위해 인간이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믿음의 선물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sup>83)</sup>

이 능력을 웨슬리는 선행의 은총 또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표현한다. 이 은총은 모든 능동적 응답의 근원이며 선한 욕망,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하는 욕망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이 선행의 은총은 받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자연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응답의 능력이다.

그래서 웨슬레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니 인간도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인간편의 책임인 것이다.

이 선행의 은총으로 인간은 믿음을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시는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고 회개의 합당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한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인간의 마음이 감각적이 되고, 둔감해 있던 마음이 민감하게 열리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활동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웨슬리는 자연인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을 주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게 된 것이다.<sup>84)</sup> 이것이 웨슬레가 이해하는 인간의 실존이다.

---

83) Ibid, p.138

84)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p.133.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으로 회개의 촉구를 하신다.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한다. 선행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인간은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회개해야 하는가? 웨슬리는 그의 인간관에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이래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고 한다.<sup>85)</sup> 웨슬리의 구원론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죄인으로서의 상태에 관한 그 자신의 이해와 관련을 맺고 있다<sup>86)</sup>. 그가 이해하고 있는 바의 인간의 상태는 세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는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이고, 둘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이고, 셋째는 은총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에 대한 진술은 인상적이다. 웨슬리는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인간이라고 진술하였다. 자연인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는 다른 말로 원죄 즉 죄의 세력에 사로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 자신에게 돌리며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자기를 사랑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움직여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칭찬받고 싶어한다.<sup>87)</sup> 또한 우상 숭배(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하고 필요로 하며 영광을 돌림)의 죄를 저지른다. 이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죄의 결과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자연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

85) Ibid, p.129.

86) Ibid, pp.60~61.

87) 조종남저, **요한웨슬리 설교전집**, (서울:문덕인쇄, 1994), pp.97~100.

웨슬레에게 의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 속에서 선행적인 은총으로 역사하여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을 율법의 심판 아래로 이끌어 들임으로서 타락의 조건을 인식하게 한다. 선행의 은총으로 인간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sup>88)</sup> 사실 그 양심으로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행의 은총을 양심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 2. 확신의 은총

선행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게 되며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즉 율법으로 회개의 촉구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한 인간에게 구원은 “확신적 은총”에 의해서 수행된다<sup>89)</sup>. 확신적 은총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보다 깊은 자각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확신의 은총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전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확신의 은총으로 이제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

---

88) Ibid, p.79.

89) 콜린 W. 윌리엄즈, ■■■ 존 웨슬리의 신학: 현대적 의의■■■, 이계준 역 (증보판, 서울:전망사,1993), p.41.

원받기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확신의 은총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인정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 받기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이다. 이 회개는 이제 선행의 은총으로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웨슬레에게 있어서 믿음은 회개 이후에 오는 것이다.<sup>90)</sup>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죄인인 인간을 참회로 이끄시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웨슬레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참회 또는 죄의 확신을 신앙보다 앞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웨슬레의 구원론은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초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참회는 신앙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후에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업적이었기 때문이다<sup>91)</sup>. 이로 인하여 참회의 신앙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업적을 이루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참회의 업적이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업적은 참회의 신앙의 열매로서 의인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계속적인 역사의 조건으로 참회의 신앙에 따르는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의 수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

90) 조항백, “요한웨슬레의 완전사상 이해”(석사학위논문: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1990), p.23,39.

91) Ibid, p.23,39.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인간의 측면에서의 참회의 신앙에 따른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으로서의 열매가 갖는 성격은 다만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을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서의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업적은 참회의 신앙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된다. 도덕적 의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의 신앙을 용납하도록 허용한다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표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 3. 칭의의 은총

확신의 은총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때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신다. 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것이다.<sup>92)</sup>

그렇다면 칭의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이다<sup>93)</sup>.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럼으로써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

92). 이장옥, “J.Wesley의 성화윤리 연구”(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신학대학원,1990), pp.13~15.

93) Ibid, pp.16~17.

럼으로써 하나님께 확고히 의뢰하는 믿음이다. 한마디로 고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 4. 의인이 됨

### a. 의인의 조건

웨슬레에 의하면 의인, 곧 칭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오직 ‘믿음’ 밖에는 없다<sup>94)</sup>.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웨슬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고 뉘우쳐 참회하게 되는데, 참회의 열매는 ‘믿음’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제 참회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인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의인의 조건은 오로지 믿음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칭의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동시에 반드시 회개, 곧 참회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웨슬레는 이때의 참회를 인간 자신의 극복할 수 없는 죄성, 무력감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이해했다<sup>95)</sup>. 이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확고히 의뢰하는 믿음이다.

### b. 의인의 내용

---

94) 이장옥, “J.Wesley의 성화윤리 연구”(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신학대학원,1990), pp.13~15.

95) Ibid.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속죄, 곧 죄의 용서이다. 사망선고를 받은 죄인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96)</sup>. 의인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상태이다. 그럼 이 믿음으로 칭의 받아 얻는 구원은 무엇인가?

첫째 현재의 구원이다. 둘째 모든 죄(원죄, 자범죄)에서의 구원이다. 셋째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다.<sup>97)</sup> 현재의 구원이란 현재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모든 죄에서 구원이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습관적인 죄나 고의적인 죄 그리고 죄 된 욕망에서부터 나온 죄를 짓지 않는다.<sup>98)</sup>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정죄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sup>99)</sup>

그렇다고 의인 받은 사람의 실제 생활이 사실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거나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유죄로 선고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5. 신생

---

96) 이동명, “웨슬레의 구원관이 현대선교에 끼친 영향”(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대학원,1991), p.30.

97) 조종남저, ■■■요한웨슬리 설교전집■■■, (서울:문덕인쇄, 1994), p.18~19.

98) Ibid, p.21.

99) Ibid, p.20.

웨슬레의 구원론에 따르면 의인의 사건에 동반되어 일어나는 사건으로 “거듭남”이라고도 말하는 “신생”의 사건이 설명 된다<sup>100</sup>). 이 신생의 사건은 의인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굳이 순서를 논한다면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이 동일한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인이 상대적인 변화를 뜻한다면 신생은 진정한 실제적인 변화를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심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지만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서 인간 안에서 일하신다.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외적인 관계성을 변화시킴으로서 원수의 관계였던 것을 자녀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신생은 인간의 내적 영혼을 변화시킴으로서 죄인을 성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의인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신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의인은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신생은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상이한 것이다.

#### a. 신생의 본질

사람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신생은 자연적인 출생과 흡사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은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감각한

---

100)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개정증보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93), pp.178~179.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 b. 신생의 증거

신생은 신생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실 때, 혹은 인간의 영혼을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서 의의 생명의 삶으로 일으키실 때에 인간의 속에서 역사하여 외양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sup>101)</sup>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신생의 증거는 무엇인가?<sup>102)</sup> 첫째는 “화평”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주장(골3:15)”하는 것이며 “흑암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 상태는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칭의의 상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둘째는 ‘소망’이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빌1:23)”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는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희망은 “빛나는 형상” 즉 마지막 심판주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 즉 신령한 것으로 다시 지음 받은 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받는 것이다. 희망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깃”을 기다리는 것이다

셋째는 ‘기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죄과의 용서를 받아서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광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을 가지고

---

101) Ibid, pp.178~180.

102) Ibid, pp.50~54.

(롬5:2) 크게 기뻐 한다”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바 되었습니다.(롬5:5)”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었고 마음의 기쁨이었으며 시간과 영원에서의 그의 분깃(영생)”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확신시키시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믿는 바의 구원을 하나님이 구속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 6. 믿는 자의 회개

신생한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가? 아니면 이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웨슬레는 바울의 주장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의한 악한 성질이 신생한 자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한다.<sup>103)</sup> 그의 ‘신자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라는 설교에서 그는 갈5:17“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자도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함을 말한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성서의 말은 무엇인가? 신자안에 아직 싸워야 할 죄의 세력이 남아 있다면 신자는 부분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닌가? 바울의 말을 우리는 분명히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신자는 과거의 죄책에서 완전히 새로

---

103)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개정증보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93), p.112.

워졌다. 즉 과거의 죄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다.<sup>104)</sup>

웨슬리는 이렇게 이 악한 정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세력으로 신생한 자의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신자가 성령을 따를 때에는 항상 우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05)</sup>

그러므로써 웨슬레의 생각은 신자에게는 죄가 없고, 육체에 속한 정욕도 없고, 타락의 경향성도 없다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다. 따라서 신생한 자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 곧 교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상숭배, 불신 등을 항상 느끼며 산다면 신자가 칭의와 신생함을 받은 후에도 회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신자안에 남아 있는 죄는 무엇인가? 고집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의지를 더 중요시한다. 자만이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책임지려고 한다. 또한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긴다. 분노와 탐심도 신자안에 있는 죄이다.<sup>106)</sup>

그래서 계속하여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때로 자만, 고집,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안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향락을 좇게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만도 죄이다. 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이다. 태만은 내적으로 선한 생각을 품으려 하지 않고 외적으로 사랑과 경외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sup>107)</sup>

---

104) Ibid, p.119.

105) Ibid,119

106) Ibid, pp.135~137.

107) Ibid, p139.

그렇다면 불신자와 신생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웨슬리는 신생하지 못한 사람은 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에 비하여 신생한 자는 죄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신생한 사람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다<sup>108)</sup>. 다시 말하면 신생한 자도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죄의 세력과 맞서서 있는데, 그 맞선 상태는 대항해서 싸우는 상태인 것이다.

## 7. 성령충만과 성화

### a. 성화의 기준으로서의 십계명

신생한 자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든 성품” 즉 “걱정과 교만, 육욕과 허영, 야심과 탐욕”에서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서 초연하다(요일2:16)”고 한다. 신생한 자는 삶에서 말로서 죄짓는 일들 즉 “거짓말, 허위, 사기, 꾀사, 정의나 자비에 어긋나는 말, 비방”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행위는 십계명에서 지적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런 자는 성화된 자이다.

### b. 성령충만과 은혜의 수단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몰주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몰주심”은 성령충만이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의식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정해진 수로를 계속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성령충만을 받는다.

---

108) 이장욱, “J.Wesley의 성화윤리 연구”(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신학대학원,1990), pp.21~22.

웨슬레는 구체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종교의미로는 예배와 찬송, 기도이며 도덕적 의미로는 선행, 구제 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초대기독교의 구원받은 개인들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초대기독교들의 영혼은 “선을 행하는 일을 갈망”했다. “단순히 악을 행하는 일을 그만둔 것”은 소극적인 것 겸손, 인내 등이다. “선을 행하는 일을 갈망”은 적극적인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행위인 예배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 c. 점진적이며 순간적인 성화

웨슬레의 이 성화론은 몇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점진적인 성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칭의를 포함하는 초기의 성화의 단계로부터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하여 성장한다는 것이다. 웨슬레가 이처럼 점진적인 발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 성화의 시작은 신생이었다. 신생의 순간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적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초기의 성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악한 성질, 악한 생각과 싸우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성화의 발전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특징은 성화의 이 점진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려 올려지는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웨슬레가 이처럼 성화의 과정에서의 순간적인 발전의 단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은 ‘성화’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자신의 이해가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자신의 올더스케이드에서의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다.

#### d.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론’의 특징

첫째, 웨슬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기독교의 진수였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웨슬레는 이 목표로서의 기독교인들의 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109)</sup>.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이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온갖 더러움과 모든 내적, 외적 불결을 탈피하는 마음의 할례이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두번째의 특징은 동기와 사랑 안에서의 완전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10)</sup>.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할 때에 그것은 인간 자신의 무지나 실수 등의 제약성을 탈피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본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제약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영화”의 순간으로 미룬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제약성을 죄로 여긴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마음속에 죄가 있는 상태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기가 되는 문제로 보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문제도 그 동기의 순수성에서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

109)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개정증보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93), p.189.

110) Ibid, pp.191.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그대로의 완전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음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그릇된 성정이 전혀 없고 생각과 행동의 전부가 순수한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태의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사람들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

세번째의 특징은 순간순간 주를 의지함으로 유지되는 완전 이었다<sup>111)</sup>. 이것은 웨슬레의 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특징이다. 웨슬레는 죄를 이중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는 율법을 의식적으로 범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죄였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가운데에서 의식적으로 범하는 죄는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자신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순간순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가능한 완전인 것이다.

네번째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전도와 봉사의 원동력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12)</sup>. 웨슬레에게 있어서 성결은 윤리적 또는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웨슬레에 의하면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은 복음

---

111) Ibid, pp.194.

112) Ibid, pp.196.

전파와 사랑의 봉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 즉 복음 전파와 사랑의 봉사의 생활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웨슬레가 말하는 성결론은 복음 전파와 사회봉사의 동기와 기초를 제공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 IV.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구원단계비교

### A. 구원단계의 관점 비교

칼빈과 웨슬레 신학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체험된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경험을 그들의 사상체계인 신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칼빈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신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에 비해 웨슬레신학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두 신학자의 신앙경험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영광에 있었으므로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그 은총을 적극 긍정하는 예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실 그에게는 어떤 구원론의 체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이 예정론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다. 칼빈은 급작스런 회심에서 저항하는 자까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의 능력으로<sup>1)</sup> 순간적인 구원을 경험하였으므로 그에게 있어서 구원

순서는 순간적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닌 것이다.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는 동시적 사건이며 그에게 구원 단계라는 용어자체도 어울리지 않는다. 구원은 이중예정에 의한 선택에서 확정되었으며 선택개념에서 모든 구원순서가 논리적으로 귀결된 것이다. 성도의 견인도 그런 개념의 연장이다. 칼빈의 신학은 모든 면에서 예정사상에 근거한 결과론적인 신앙고백적 진술이다.

이에 비해 웨슬레는 18세기의 인간이성 강조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의 영향과<sup>2)</sup> 영국인의 종교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이신론사상<sup>3)</sup> 극도로 부패한 도덕상태<sup>4)</sup> 칭의 얻는 믿음을 실제적 행위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로 보는 영국교회의 변질된 신학<sup>5)</sup> 그리고 가정에서,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하고<sup>6)</sup>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구원을 강조하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다는<sup>7)</sup> 부모의 신학적 입장 등의 영향으로 오랜 동안 선행을 통한 구원사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뇌에 찬 노력을 경주하였다. 웨슬레는 의지적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했으며 올더스케잇 체험에서 응답을 얻은 것이다. 웨슬레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지만 그 은총의 범위에서 그는 구원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그의 신학에서 전개한 것이다. 그는 경험을 기초로 구원의 길에서 인간의 응답적인 면을 체계화하였다.

이 차이점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

1) 주재용, "칼빈의 생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한신대출판부, 1978), p.35.

2) E.S.Moyer, op.cit., p.385.

3) W.Cannon, op.cit., p.17.

4) 송홍국, 「요한웨슬레」, op.cit., p.7.

5) W.Cannon, Ibid., pp.47-53.

6) Tyerman, Life and Times of John Wesley(New York:Harper & Bros.1872), I, p.40; Cannon, Ibid, pp.56-57.

7) 조종남, op.cit., p.23.

것이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고 웨슬레는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간 편에서의 순종과 헌신으로서의 응답에 의한 시간적 구원순서를 전개한 것이다.

또 웨슬레는 칭의와 특별히 성화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의 죄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죄를 원죄와 원죄에 의한 특수한 죄로 보고 구원은 죄문제의 해결에 있으므로, 칭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점진적 성화과정과 완전성화에서 원죄의 부패성을 해결하는 실제적 생명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그의 구원단계에서 드러난다. 반면 칼빈은 예정론사상으로 구원단계에서 어떤 인간적 의지적 응답에 의한 하나님과의 협동도 철저히 배제시킨다.

이상의 관점차이로 칼빈과 웨슬레는 구원순서 단계의 체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 **B. 구원단계상의 차이**

앞에서 고찰한 두 신학자의 관점차이가 사실상 모든 비교의 근원이지만 여기서는 세부적인 차이를 비교한다.

### **1. 선행은총과 소명.**

웨슬레는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죄인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기 이전부터 내리시는 선행은총이다. 이것으로 죄인은 누구나 응답할 능력을 부분적이거나 회복하여 의지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다.

칼빈도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인도로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순서가 아니라 신자의 선행을 설명하는 것이다.<sup>8)</sup> 칼빈은 이중예정으로 선택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 2. 칭의와 중생

칼빈은 예정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순서로 진행된다. 반면 웨슬레는 선행은총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방향전환의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 선물인 믿음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고 내적인 참변화인 중생을 하게 된다.

칼빈의 칭의관과 웨슬레의 칭의관은 서로 일치한다.<sup>9)</sup> 웨슬레가 칭의를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지난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칼빈과 웨슬레의 사상에 있어서 똑 같이 칭의의 근원이 된다.<sup>10)</sup> 그러나 칭의에서도 대체적 일치 가운데 차이점은 칼빈의 칭의는 선택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하는데 반해 웨슬레는 구원은 은총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야 한다는 점이다.<sup>11)</sup>

## 3. 점진적 성화와 성도의 견인

---

8) Inst. II, 3.7;14.

9) W.Cannon, op.cit., p.113.

10) Ibid., p.114.

11) Ibid., pp.113-118.

칼빈은 칭의된 자는 결국 구원을 잃지 않으며 성령의 돌보시는 은혜로 궁극적 구원을 얻도록 나아간다고 한다.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죄와 계속적인 영적 투쟁을 하며 성화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다.

웨슬레는, 칭의 이후 신자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면서 성령의 증거를 얻어 구원의 확신을 하며 내면적인 죄를<sup>12)</sup>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신자의 회개를<sup>13)</sup>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자는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 4.성결,성화

이 단계에서 양 신학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 성결은 웨슬레 신학에서 구원론의 강조교리인데 비해 칼빈신학에서는 칭의교리가 강조되고 있다. 웨슬레는 신자가 점진적 성화과정을 거쳐서 실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적 신앙의 단계로 성결을 말한다.<sup>14)</sup> 물론 이 완전성화는 칭의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성결에서도 계속적인 성장을 하며 타락의 여지도 있다. 이 성결은 재침례파가 주장하는 개념의 완전이 아니다. 신자가 내면적인 죄와의 갈 등을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여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웨슬레와 칼빈은 같은 성화의 개념, 즉 죄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형상의

---

12) Ibid., p.175.

13) Ibid., pp.180-181.

14) Ibid.

회복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화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신자안에서의 영육전<sup>15)</sup>을 겪게 되나 택함 받은자는 하나님께 받은바 확실한 신앙과 견인으로 흔들림이 없다고 본다.<sup>16)</sup>

## V. 결 론

지금까지 연구의 초점은 칼빈과 웨슬레 신학에서 구원론의 체계인 구원순서를 고찰하는데 있었다.

칼빈은 돌연한 회심을 통하여 즉, 자신은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행위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힘에 의해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였으므로 그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표현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어떤 인간의 응답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강력한 예정사상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을 전개한 것이다. 예정사상은 발전하여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으로 확립되었으며 그런 맥락에서 칼빈의 구원론은 이해될 수 있다.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그가 이전에 개념적으로 깨달은 기독교완전 사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칭의에 있어서 선행과 지적동의를 포함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영국교회의 신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 신칭의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는 오랜 고투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신앙경험 곧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력하고 부패하

---

15) Inst. III, 2, 18.

16) Inst. III, 2, 19.

였으므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의 신학에서 구원단계의 순서를 체계화시켜 놓았다.

웨슬레의 구원론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한 구원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웨슬레 자신이 의지적 헌신의 결단과 자기포기 및 절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구원단계가 순간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인데 비해 웨슬레의 구원은 점진적이며 순간적으로 진행되므로 구원순서가 시간적인 순서인 것이 큰 차이점이다. 칼빈의 구원순서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과 선택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응답을 웨슬레가 나타내므로 칼빈주의에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웨슬레는 알미니우스가 아니라 웨슬레주의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신인협동의 사실은 알미니우스와 달리 인간의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처럼 완전 타락과 전적 부패함을 주장하면서, 원죄사상을 그의 죄관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아래 회복된 자유의지로 순종과 헌신의 의미로서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레는 선행은총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단계에서 시종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한 구원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순서에서 사실상 문제점은 웨슬레의 성결, 기독자완전사상과 칼빈의 현세에서는 불완전한 성화개념의 차이이다. 웨슬레는 성결을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믿음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성서가 강조하는



핵심적 사상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칼빈은 성화의 개념은 동일하게 언급하면서도 그것은 사후에야 이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기독교의 완전은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로마교회의 선행에 의한 구원의 타락된 신학사상으로부터 성서적이고 본질적 구원의 도리인 이신칭의 사상을 적극 긍정하고 체계화하여 개혁을 완성하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한 성서의 핵심교리이다. 즉 개혁자들의 이신칭의 사상의 진보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신학을 비교한 의도가 어떤 것의 우열을 가늠하고자 함이 아니며, 신학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봉사하고 섬겨야 하며 또 두 신학이 그동안,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신앙을 인도해야 하므로 비교를 통하여 동질점과 차이점을 살펴 상호 보완이 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 구원의 완성에 있고, 당연히 신학은 그 과정을 확실히 제시해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이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단계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하는 바는 같으므로 이를 신앙인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관심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헌신을 두 신학으로부터 발췌하여 오늘의 여러 신앙적 불일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웨슬레는 칼빈의 이중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예정사상을 제외하고는 사상적인 일치를 이루고 그것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칼빈과 웨슬레 둘 다 성서를 적극적으로 긍정한 성서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장로교의 대부분이 신학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칼빈신학의 예정론의 실생활적 한계점을 웨슬레 신학에서의 성결에의 목표를 삼는 신앙의 모습들을 긍정하고 또한 웨슬레 신학의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경향성을 조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신앙을 강조 보완할 때 한국교회는 신앙적으로 한걸음 더 성숙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개혁주의적 교리를 완성해 가는 길이며 현대교회의 문제점들과 신자의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칼빈신학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서울:엠마오, 1984.

박봉량. “칼빈의 예정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한국신학대학출판부,1978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한국신학대학출판부,1984.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기독교문서선교회,1984.

주재용. “칼빈의 생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황성규. “칼빈의 의인론.”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Berkhof, Luis,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리 요약」,박수준 역,서울:소망사,1980.

\_\_\_\_\_ , Systematic Theology 「뵘콧 조직신학」 Vol.5. 고영민역, 서울: 기독교문사,1979

Boetter, L.B.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칼빈주의 예정론」,홍의 표역, 서울:보문출판부,1975.

Calvin,John, A Comped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79.

Dale M.Yocum. 「웨슬레신학과 칼빈신학의 비교」 손택구역(보이스사. 1998.)

- Murrey, John. 「칼빈의 성경관과 구원사상」 나용화 역. 서울:예수교문서선교회,1982.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Westminster Press,1965,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 Reed, R.C. The Gospel as Taught by Calvin.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홍병창 역, 서울:교회교육연구원,1985.
- T.F.Torrance. "칼빈에 있어서 신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말의 문제"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서울:연세대출판부, 1965.
- Calvin, John.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강요」 Vol.4, London: James Clarke & Co., 1962.

## 2. 웨슬레 신학

- 나균용, “웨슬레 구원론의 특색.” 「신학과 선교」 7집, 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81,
- 박장균, “웨슬레의 은총론.” 「신학과 선교」 1집, 서울신학대학출판부,1972.
- 송홍국, 「웨슬레신학」.서울:대한기독교서회,1980. , 「요한웨슬레」.서울:대한기독교서회,1980.
- 이천영, “웨슬레 복음운동의 사적 고찰.” 「신학과 선교」 1집, 부천: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77.
-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84.
- 콜린 W .윌리엄즈, ■■■존 웨슬리의 신학:현대적 의의■■■, 이계준 역 (증보판, 서울:전망사,1993)
- Cannon William R., The Theolory of John Wesley. 「웨슬레 신학」, 남기철역, 서

- 울: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6.
- Cell Gorge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존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85.
- Harper, Steve., Message of the Wesley's 「웨슬레의 메시지」 신광준역. 서울:도서출판 웨슬레,1986.
- J.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 정행덕역, 서울:전망사, 1961.
- John.Wesley, 「존웨슬레총서」 총10권 서울:웨슬레사업회, 1983.
- Lindstrom, Harold., Wesley and Sanctification. 「웨슬레와 성화」, 전종옥역, 서울: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1984.
- Mickey, Paul A., Essentials of Wesleyan Theology. 「웨슬레신학의 요점」, 라영복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85.
- Outler, Albert C., Evangelism in the Wesleyan Spirit. 「웨슬레정신으로 본 복음주의」, 허신규역, 서울:기독교감리회 교육국,1982.
- Snyder, H.A., The Radical Wesley & Pattern for Church Renewal. 「혁신적 교회 갱신과 웨슬레」, 조종남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1986.
- Wesley, John.,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 정행덕역, 서울:전망사, 1981.
- William R. Cannon, 요한웨슬리 신학, 조종남번역(서울:감리교교육국), p.132.
- Williams, Collin W. John Wesley's Theology Today. 「존 웨슬레의 신학」, 이계준역, 서울:전망사,1983.

### 3. 논문 및 기타

김재혁,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비교이해.” 부천:서울신학대학,1986.

안수도, “칼빈의 예정론.” 서울: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4.

이동명, “웨슬레의 구원관이 현대선교에 끼친 영향”(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1991)

이장옥, “J.Wesley의 성화윤리 연구”(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신학대학원,1990)

조항백, “요한웨슬레의 완전사상 이해”(석사학위논문: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1990)

홍순우, “구원론에 나타난 칼빈신학과 웨슬레신학의 비교연구”, 서울: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1980.

Kuiper, B.K. The Church in History. 「세계기독교회사」,김해연역,성광문화사,1983.

Moyer, E.S. Great Leaders of Christian Church. 「인물중심 교회사」, 박안전, 심재원역, 대한기독교서회,1986.

Neve, J.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1,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회사」, 서남동역, 대한기독교서회,1983.

Walker, W.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세계기독교회사」,강근환외 3인 공역, 대한기독교서회, 1982.